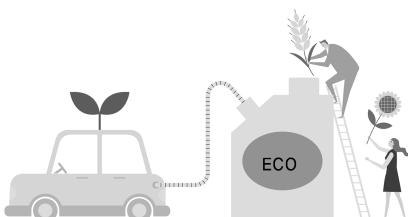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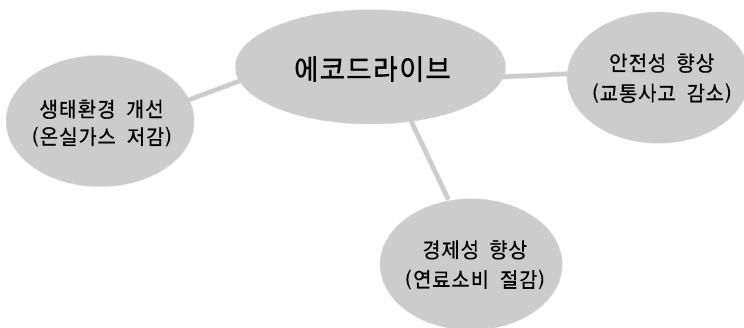


2. 에코드라이브(친환경 경제운전) 요령

1 에코드라이브의 정의

에코드라이브(Eco-Drive)란 Ecology(생태환경), Economy(경제), Drive(운전)의 합성어로 친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지향하는 운전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말로는 “친환경 경제운전”으로 보통 일컫는다. 간단하게는 “경제운전”으로 통용되며,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에코드라이브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및 방법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관리 방법 개선, 차량중량을 줄이고, 교통정보 활용, 도로환경에 따른 운전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 ● ●

2 에코드라이브 실천 요령

실천 항목	실천 요령
1. 교통정보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정보 매체(지도, 인터넷,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등)를 활용하여 운행 전 최적경로 파악
2. 엔진예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진 예열은 10초 정도가 적정하며, 최대 30초를 초과하지 않음
3. 출발은 부드럽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출발 후 5초까지 시속 20km(1,500rpm)에 맞추어 서서히 출발
4. 정속주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가감속을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주행-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5. 경제속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도로에서는 60~80km/h 준수- 고속도로에서는 90~100km/h 준수
6. 운행 중 공회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초 이상 주정차 시 엔진 정지- 신호 대기 시 주행모드(D)를 중립모드(N)로 전환- 고속도로 주행 시 하이패스 활용
7. 관성주행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리막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 사용- 오르막길은 사전에 가속시켜 관성으로 주행- 교차로 신호를 예견하여 관성으로 정지
8. 적재물 다이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렁크를 비우고 불필요한 짐 빼기-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서 운행
9. 타이어 공기압 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단위로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검사- 특히, 겨울철은 여름철 대비 최대 40% 공기압이 줄게 되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 점검시점은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냉간시
10. 에어컨 사용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컨 사용은 최대한 억제- 에어컨 사용 시 고단에서 작동 후 저단으로 유지- 목적지 도달 몇 분전 에어컨 사전 중지
11. 소모품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소모품 교환주기 준수- 최소 1개월에 1회 차량 점검·정비※ 공기청정기, 연료필터, 점화플러그,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배터리, 산소센서, 공기흐름센서, 훨얼라이먼트 등

3 에코드라이브의 효과

에코드라이브 실천은 비용적 절감, 특히 연료비, 타이어 교체비용, 수리비, 유지보수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연료소비 절약에 따라 배출가스도 줄게 되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코드라이브의 실천으로 안전한 운전습관이 정착되어 잠정적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1) 연료절감

에코드라이브의 실천은 연료를 절감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0km 주행 시 연간 386.9ℓ 정도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는 약 54만1천원(1,400원/ℓ 기준)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10~30%의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10% 절감 시 연간 약 31억ℓ 절감시켜 약 4,3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2) 온실가스 저감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자동차는 탄화수소(HC), 미세먼지,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CO₂)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산화탄소(CO₂)가 온실가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승용차 1대당 연간 약 3.48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이를 상쇄시키려면 소나무 696그루가 필요하다. 에코드라이브를 통해 연료소비 10% 감축 시 348kg의 이산화탄소(CO₂)가 감소되어 참나무 70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약 10%인 연간 약 300만톤의 저감 효과를 나타내어 약 9백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 국토의 약 1.5배 해당하는 면적을 녹화하는 것과 같은 개선효과라 볼 수 있다.

3) 교통안전 향상

에코드라이브의 실천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잠정적 교통사고의 30% 가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잠정적 교통사고의 30%가 감소하면 4조 2천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을 감소하는 등 단기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